

5-8-8위 성적 책임은 누가...팬들 “다른 구단 응원하겠다”

KIA, 선동열 감독과 2년 재계약 파문

내년 주축 선수들 대거 이탈...팀 리빌딩 과제로

KIA 타이거즈가 ‘독이 든 성배’를 들었다. KIA 타이거즈가 19일 선동열 감독과 2년간 총액 10억6000만원(계약금 3억원, 연봉 3억8000만원)에 재계약을 체결했다. 3년 연속 가을잔치에 실패했던 선 감독은 구단의 재신임으로 2년간 다시 팀의 지휘봉을 잡게 됐다.

◆피해할 수 없는 암흑기와 레전드의 명예 회복
2년 연속 8위라는 암담한 성적 속에 선 감독의 입지는 좁아졌다. 재계약에 대한 비판론이 우세했지만 구단의 최종 선택

은 재신임이었다. 내년 상황과 레전드의 명예를 고려한 선택이다. KIA에겐 대대적인 리빌딩이 불가피하다. 눈 앞의 성적에 급급했던 구단과 벤치의 운영으로 미래를 준비해 놓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 김선빈·안지홍의 공백이 있다. 에이스 양현종도 해외에 진출할 수도 있는 만큼 리빌딩이 우선 과제이자 목표가 됐다.

전폭적인 리빌딩을 위해 완전하게 새 판을 짜느냐와 팀을 잘 아는 이를 선택해 시행착오를 줄이느냐는 고민 속에 KIA는 후자를 선택했다. 고민없이 선택할 대안

이 없었다는 것도 한 이유다. 리빌딩이 불가피한 상황. 성적에 대한 부담없이 ‘레전드’가 명예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이 담겼다.

KIA 입장에서 안정적인 리빌딩과 선 감독의 명예회복이 어우러진다면 최상의 선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3년의 실패가 컸다는 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지 못할 경우 되돌릴 수 없는 암흑기로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독이 든 성배’를 든 셈이다.

◆선수단과 팬들 재신임이 우선
NC와 LG의 준플레이오프 1차전이 진행되던 19일 오후 전해진 재계약 소식은 남의 잔치에 잔물을 끼얹었다. 각종 야구 게시판은 ‘선동열 감독 재계약’ 소식으로 뜨겁게 끓어올랐다.

지난 17일 롯데 김시진 감독이 지휘봉

을 내려 놓은 만큼 다음 시즌은 선동열 감독에게 쏟아졌던 상황. 팬들에게는 예상치 못했던 시점에 나온 예상치 못한 결과였더라 논란이 거셌다.

팬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재계약에 대한 반응은 대부분 부정적이었다. “응원 팀을 바꾸겠다”는 목소리도 많았다.

구단 존재의 이유는 팬이다. KIA와 선동열 감독은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난 3년간 팬들의 마음은 싸늘하게 식었다. 5-8-8위로 이어지는 참담한 성적도 성적이지만 그 내용이 좋지 못했다. ‘부상’이라는 핑계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무기력한 패배의 연속이었다. 3년간 KIA의 야구는 뒷걸음질쳤다. 미래도 제시하지 못했다. 강력한 우승후보였던 KIA는 4강 후보에서 암흑기를 앞둔 최하위 팀으로 몰락했다. 국내 최고의 시

설을 자랑하는 챔피언스필드는 색깔 없는 야구에 점점 지리가 비어갔다.

팀을 대표하는 프랜차이즈 스타 육성과 대접에 소홀한 사이 팬들의 마음과 발길을 잡은 선수들이 해외진출, 군입대, 트레이드 등으로 팀을 떠나고 있다. 빠르게 이탈하고 있는 팬들의 마음을 잡아야 한다.

◆선수단 마음잡기, 실패의 책임은 저야 한다
‘소통’은 KIA의 화두이자 실패 요인이다. 선 감독은 부임 첫해부터 베테랑을 중심으로 하는 소통과 이음값을 버린 야구를 얘기했지만 결과는 ‘공약(空約)’이었다. 매년 겨울 구단도 ‘소통’을 강조하면서 재도약을 얘기하곤 했다.

선 감독은 지난 겨울 워크숍에서 권위를 벗고 스텝 없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스프링캠프에서도 예전과는 다른

부드러움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앞선 2년의 불통이 쉽게 소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성적 추락 속에 풀릴 것 같던 소통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수장의 전략적 실패가 거듭 되면서 선수들의 불신은 커졌다. 위기에 무기력했던 사령탑, 선수들의 믿음을 얻는 일도 속제로 남았다.

아낌없는 투자와 지원이 있었지만 성적과 미래 모두 실패했다. 누군가는 실패에 대해 냉정하게 얘기를 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진짜’ 새출발을 위해서는 3년의 잔인한 기억을 지우고 마음을 한데 모아야 한다. ‘거짓’ 반성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선 감독과 KIA는 팬들과 내부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나주 AI 확산...오리 1만마리 살처분

지난 11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2만여 마리의 오리를 살처분한 나주지역에서 AI 확산 조짐으로 추가로 1만마리의 오리가 살처분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나주시 금천면 광암리의 모 오리 농가에서 출하 오리 중 일부에서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축산 방역 당국은 고병원성 여부를 판명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해당 농가의 오리 4500여 마리를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했다.

또 방역 당국은 이날 오전 200마리 오리가 폐사하고 나머지 오리들이 먹이를

먹지 않는 AI 의심 증상이 발생한 나주시 산포면 등수리에 있는 농가의 5000여 마리 오리로도 살처분 조치했다.

이날 모두 약 1만마리의 오리를 살처분한 두 곳의 오리 농가는 지난 11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남평면의 오리 농가에서 10km 이내에 위치한 농가들로 AI가 주변 농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와 나주시는 고병원성 AI 발생지를 중심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방역에 온 힘을 쏟을 계획이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한-남아시아 문화장관회의’에 참석한 각국 문화장관들이 17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현장에서 관계자로부터 완공을 앞두고 있는 주요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내년 공공기관 임금 3.8% 인상

민간기업 도미노 효과 기대

내년 공공기관 직원 연봉이 올해보다 3.8%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무원,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임금 인상이 민간기업에도 ‘도미노 효과’를 일으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19일 “내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직원 임금 인상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한 3.8%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런 방침에 따라 이르면 내달 중 ‘201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

산편성지침안’을 마련해 공공기관운영 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이 지침은 개별 공공기관이 직원 임금 인상률이 포함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기본 가이드라인이 된다.

내년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3.8%는 지난 2012년 이후 3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정부가 공무원에 이어 공공기관 임금을 내년엔 전격 인상하기로 한 배경에는 공공부문 사기 진작도 있지만, 사회 전반에 임금 상승 분위기를 띄워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

/연합뉴스

2014 문화전당서 매년 남아시아 문화관광축제 연다

인도·네팔 등 문화장관 공동선언문 발표

내년 9월 개관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에서 남아시아 각국의 문화를 알리는 ‘문화관광축제’가 정기적으로 열린다.

한국과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남아시아 문화장관 등은 지난 18일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제1회 한-남아시아 문화장

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 따라 남아시아 각국은 공연, 예술, 전시, 예술교육 등 인적 교류를 위한 공동 창작·협업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남아시아의 우수한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예술을 선보이는 ‘한-남아시아 문화주간’이나 ‘남아시아 예술

제가 열린다. 이들 행사는 내년 개관하는 문화전당 프로그램에 포함돼 광주가 아시아 문화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추진단)은 지난 2012년부터 중앙아시아를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동남아시아 문화장관회의를 광주에서 개최, 문화전당 콘텐츠를 확보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앙아시아권은 신화와 전설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을, 동남아

시아권역은 전통음악, 남아시아 권역은 무용 분야에서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추진단은 내년 문화전당 개관을 기념하기 위해 26개국 문화장관이 참가하는 아시아문화장관회의를 열 계획이다.

김성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은 “한국과 남아시아는 물론, 아시아 국가 간 문화교류 협력 확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4성급★
호텔건물매매

현재 노인요양시설 허가 취득

- 엘리베이터 설치 및 리모델링공사 완료
- 목포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위치
- 4성급호텔, 노인병원 등 즉시 사업가능 (커미션은 후입중)
- 주차장 및 부속상가 건물 3동

한국건설원 감정가보다 20% 감액 매매 예정

목포시 대의동 2가 1-9번지의 3필지(지상 9층 지하 1층)
토지면적 3,478㎡(1,054평)/건축면적 7,091㎡(2,149평)

연락처 010-9823-7781, 010-9668-5151

무등도서관 사거리 최고 상권
참조은 빌딩 임대

2층 58평 3·6·7층 108평
주차타워 완비

5층 참조은인화
4층 한길통중의학과
3층 신한은행
1층 신한은행, 푸른약국

임업운영중

문의 : 010-2007-8848

광주전남 새마을금고 경영평가대회 대상 수상기념
담보대출 100억 특별 한시판매
더 높은 한도 더 낮은 저금리 혜택!

01 부동산 담보대출 최저 3.5%~	02 햇살론대출 운영자금 최고 2천만원 / 상업자금 최고 5천만원	03 아파트 전세 보증금대출 전세보증금 최고 80% 까지 가능	04 저당담보, 차량인, 전문직을 위한 신용대출 간편한 대출 절차로 최고 1억원 까지 가능
--------------------------------	--	--	--

더 높은 이율 더 많은 비과세 혜택!

정기예탁금	수시 입출금 통장	정기적금
1년 2.85%	최대 2.5%	1년 3.1%
18개월 2.9%		2년 3.2%
3년 2.9%		3년 3.3%

대인본점: 223-8007 / 232-7251
총장지점: 223-7217 / 223-7218